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5. 11.(금)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삼석 상임위원께서는 공무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8-22-113)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 정책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평가대상은 전년도 방송기간, 즉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총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156개 사업자 363개 방송국입니다. <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의 합계를 보시면 ‘17년, 즉 ‘16년도 평가가 157개사 361개국이었습니다. 현재 ‘18년, 즉 ‘17년도 평가는 156개사 363개국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평가대상 사업자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충주MBC와 청주MBC가 ‘MBC충북’으로 합병되어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1개 감소되었고,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KNN 제2FM과 TBN제주 방송국이 개국되어 2개국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먼저 평가영역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가 됩니다. 내용영역은 프로그램 우수도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 그리고 편성영역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등, 그리고 운영영역은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평가배점은 지상파TV 900점 등 방송매체별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영역별 점수 배점은 기본계획(안)에 있는 참고자료 배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7년에 실시한 '16년도 하반기 실적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겠습니다. 평가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지원단의 조사·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후 '17년도 결과를 확정하고 공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일정비율을 반영합니다. 추진 일정은 5월 중으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6~7월에 걸쳐 방송사에 제출자료를 접수합니다. 이어 7월부터 9월에 방송평가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대한 조사·검토와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공표가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부위원장

- 오늘 안건은 현행 평가규칙에 의한 방송평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방송평가 제도가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변별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제도연구반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회 정도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수나 배점 조정, 그리고 평가항목별 우선 순위,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 등 배점 없이 감점으로 모두 전환하는 등 현재 방송평가 제도연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허 옥 부위원장

- 지난해 3월 제3기 회의자료도 보면 방송평가위원회 회의가 하루만 열려서 심도 있는 평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2박 3일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 방송기반국장께서 평가기간을 늘리고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평가 변별력 확대 방안과 더불어서 평가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문제까지 포함 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평가가 재허가·재승인에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4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 대개 비슷비슷한 평가점수를 받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개선방안 논의를 몇 차례까지 회의를 했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회의 자체는 지난주까지 해서 총 6차례 개선반을 운영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6차례 해서 나온 결론이 이번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미 사업자에게 평가기준들이 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방송의 예측 가능성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올해 2018년 방송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셈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것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먼저 고지를 방송사업자에게 해야 한다면 차후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송평가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더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빨리 종결해서 이미 6차까지 회의를 했다면 좋은 개선 방안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의결해서 새로운 기준을 당장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최대한 빨리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반 회의도 6차례 했고, 표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난번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게 연구도 진행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도 한두 번 더 논의하고 위원회는 늦가을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방송사업자들이 어쨌든 방송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변별력이 없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과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반 운영 중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평가위원들이 먼저 다시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정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배점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에서부터 또 방송사들의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특징이 다른 데 따라서 어떤 점을 중한 점수로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반 회의가 두어 차례 이상 더 남아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언론사들도 방청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상세하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면밀하게 준비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면밀하게 준비해서 금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가 현재 일정으로는 7월경쯤 방송평가위원회 워크숍을 먼저 하고, 이후에 방통위원회 전체위원 워크숍과 같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내년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올 연말 규칙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사무처에서 최대한 당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당긴다고 당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되,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2가지를 다 병행해야 합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방송평가의 2017년도 기본계획을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방송평가 결과가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니, 사무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송평가를 진행하고, 또한 방송평가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고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번 주요경과 중간 부분의 박스 부분입니다. 개정된 방송법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방통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3>번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지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은 제재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윗부분인데 김성태 의원의 최초 발의안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관없이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였습시다만 과잉 규제 논란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약한 주의와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번 홈페이지 게시 방법은 7일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의 팝업(pop-up)창으로 모니터 화면의 6분의 1 이상 면적으로 게시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였습시다만 다른 제한은 최소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입니다. 법에는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이 2가지를 적시했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알맞은 통지방법을 추가하고 또 사업자에게도 그 통지방법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와 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의 당구장 부분입니다. 방송법상 방통위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준용해서 게시와 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을 그리고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고드린 주요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과 다음다음 페이지에 있는 향후 일정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개정안 예고 및 부처 간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시 한 번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시청자에게도 다 알린다는 뜻이지요?

####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기존에는 제재사항을 방송사가 자기들 방송한 채널에 게시를 해 왔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홈페이지 게시와 또 중한 중재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까지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추가되어서 신설된 것이지요?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홈쇼핑사업자가 이런 제재를 저희들이 받았노라고 채널에 흘림자막으로 해 봤자 그때 본 사람들밖에는 전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일회용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지금까지 몇 회 이상 고지하라는 것도 없었지요?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시간에 우연히 본 사람만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거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게시기간도 나와 있습니까?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7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을 때는 소비자 개별 통지할 필요는 없다까지 되어 있습니까?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장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까?

○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

- 3월에 공포됐고, 시행은 6개월 기간을 줘서 그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9월 중에 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서둘러서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시청자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허위나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고지에 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에도 우려됐던 과잉 규제 논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홈쇼핑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공영방송인 MBC에서 잇따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MBC의 새 사장이 취임하시고 새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인턴기자를 했던 분을 인터뷰해서 인터뷰어 조작 논란이 있어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MBC 이른바 <전참사>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 배경화면에 세월호 참사 화면을 사용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 또 사장이 사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전의 제천 화재사고 당시 소방관들이 정상업무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서 그 역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공영방송이 방송내용을 두고 그 잘못 때문에 사과하는 일이 이어진다는 것은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기본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춘천MBC에서는 한 달 전에 강풍경보를 공습경보로 잘못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공적인 책임을 보다 면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MBC 최승호 사장이 새로 부임한 지가 작년 12월이니까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률도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도 않고 드라마왕국으로 불리었던 MBC가 지금은 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런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어서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갖가지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지난 5개월의 행적을 보면 MBC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혁명군처럼 과거에 있었던 방송을 다 뒤져서 잘못된 편파방송을 찾아내고 또 해당 기자와 프로그램 제작 직원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에 또 직원 불법사찰이라는 건도 터져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에는 직급을 조정한다고 해서 부국장 이런 것을 다 떼어버리고 직급 조정을 단순화시켰는데 노조의 반대편에 섰던 부국장을 다 강등시켜서 부장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친화적이었던 노조 편 직원은 오히려 더 직급을 올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 12명 전원을 3월 초에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해외에 함께 파견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줄지에 귀국하게 되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내막을 간단하게 들면 일본 특파원을 지내다가 소환당한 전 모 기자는 들어와서 일본에서 얻었던 허리디스크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휴직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화위원회 위원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자를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또 과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거부했더니 병원을 찾아가서 가짜 환자가 아니냐고 병원에 취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자가 육아휴직을 얻게 되어서 일본으로 다시 가족과 만나려고 돌아갔는데 3개월 일본에 파견 나가 있던 연수기자였지요. 그 기자가 또 일본의 병원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 환자가 가짜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메일 불법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물론 과거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들춰내서 벌을 줄 것은 벌을 주어야 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나 과대하게 벌어져서 완전히 편을 갈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언론사를 직접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고, 방문진으로 하여금 경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과 김석진 위원님께서 MBC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셔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MBC 경영진이 훨씬 더 각성하고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매번 회의 때마다 관심을 갖고 거론이 되는 것을 MBC 경영진도 충분히 유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문제가 일정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공영방송 개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내용들은 경영진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정 정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곡점에 이를 때에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4기 방통위가 방송제도 전반, 그리고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쏟고 그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사, 특히 MBC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들은 아마 그 문제가 있든 없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문진이라는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을 통해서 감독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든지 이야기를 듣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MBC가 다른 방송보다 특히 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잦은데 방송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지켜봐야겠고 잘 이끌어가기를 격려해야 할 것 같고 질책도 필요하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MBC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관심의 표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1분 폐회 】